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8월 9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온라인	권혁열 도의장 "점차 1인1보좌관제로 나아가야 한다" 주장 ...	1
江原日報	온라인	원주종합사회복지관, 말북 맞아 어르신에게 삼계탕 대접	2
월드태권도	온라인	원제용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미래 산업 스포츠마케팅 차별...	3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강원도의원	4
강원도민일보	12면	[동정] 최재석(동해) 도의원	4
江原日報	21면	[동정] 최재석 도의원(동해)	4
강원도민일보	11면	[동정] 김기영(원쪽) 시의장·심오섭 도의회 사회문화위 부...	4
江原日報	21면	[동정] 심오섭 도의원(강릉)	4
江原日報	01면	'반도체·바이오헬스·수소' 국비 확보 분수령	5
江原日報	02면	'반도체·바이오헬스·수소' 국비 확보 분수령	5
江原日報	02면	태풍 북상에 도내 축제·행사 줄줄이 연기	6
江原日報	04면	강원 노인 소외시키는 '디지털 장벽'	6
강원도민일보	01면	'가난한 강원 노인' 국민연금 수령자 최하위권	7
江原日報	01면	태풍 '카눈' 강원 직격 600mm 폭우 쏟아진다	8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속·고·양 문화도시 공동모색 바람직	9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전통시장 기후 변수 기민한 대응을	10
江原日報	19면	[사설] '잼버리 파행' 교훈, '청소년올림픽' 철저한 준비를	11
江原日報	19면	[사설] 개학 앞둔 학교, '묻지마 범죄'에 안전 뚫려선 안 돼	12

2023 08 08 ()

江原日報

권혁열 도의장 "점차 1인1보좌관제로 나아가야 한다" 주장 눈길

정책지원관제 본격 시행과 함께 지방자치 본연의 효과 거두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
지방자치제도 초기부터 주장돼 온 내용...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지원관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장차 의원 1인 1보좌관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8일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 제도도 의미있지만, 1인당 1명의 보좌관을 두는 것이 의회의 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더 나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민원 해결 등 현장 방문을 통한 의정활동이 중요한 지방의원의 경우, 조례 제.개정 및 정책 개발 등의 업무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권 의장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 1991년 지방자치제의 부활 당시부터 요구돼 온 사안임에도 여전히 법률제정 사항이나, 조례제정 사항이나 등의 논란 속에 법적 근거를 갖추진 못한 채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 7 8 9급 비서 각 1명 등 8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게 하고 있어 비교된다.

권 의장은 "최근에는 지방의원 보좌관제가 대한민국의회의장협의회 의제로 제기되고, 각종 지방자치 포럼 등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江原日報

2023 08 08 ()

원주종합사회복지관, 말복 맞아 어르신에게 삼계탕 대접

원주시역도연맹 후원으로 배식 봉사



원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이만복)이 8일 말복을 맞아 원주시역도연맹(회장:조부원)의 후원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을 선사했다.

원주 원주종합사회복지관이 무더운 여름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선사했다.

복지관은 8일 말복을 맞아 원주시역도연맹의 후원을 통해 이용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배식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부원 원주시역도연맹회장을 비롯해 김원화 원주종합사회복지관 이사장, 박윤미 도의원, 곽문근·손준기 원주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관은 어르신들을 위한 영양식을 손수 대접했다.

앞서 초복과 중복에는 각각 원주시청년소상공인협회, 남원주라이온스클럽이 삼계탕 지원을 하면서 지역단체들의 릴레이 봉사가 이어지기도 했다.

조 회장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해드릴수 있어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다”고 말했다.

2023 08 09 ()

원제용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미래 산업 스포츠 마케팅 차별화

태권도 국제대회 개최 스포츠, 문화, 지역경제 미치는 효과 엄청나

송필수 주 필 songs77@naver.com



원제용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노력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발맞춰,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태권도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태권도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태권도 관련 국제행사와 국제대회 개최 및 태권도 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글로벌한 위상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발의 통과 되어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과 지원에 관한 노력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제용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2023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2023 강원 춘천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장애인전국태권도대회"를 지원하며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과 지원에 관한 이번 조례 발의 통과 등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문화 의정 활동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이 2023년 8월에 국제대회를 적극적인 지원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는 올해 20년간 춘천에서 개최를 통한 스포츠, 문화, 춘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엄청나다.

2023년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는 참가 51개국 전체 3,260명 팀 관계자, 임원, 관람객, 학부모 포함 연 3만여 명이 춘천을 찾는다. 이번 대회 6일간 체류 기간 연인원 모두 3만여 명 예상 춘천 숙박업계, 음식업계 특수에 기여하고 춘천시 지역경제 부양 효과에 일조하며 문화 및 유 무형의 경제 파급 효과로 직접 소비 생산 부가가치 유발 등 간접효과 포함 145억여 원 추정의 춘천 지역경제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가 태권도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대회 개최 도시 매력과 지역축제와 함께 먹거리 체험을 통한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원제용 의원은 이번 대회에 참가팀이 불편함이 없도록 숙소 관광지 투어와 함께 지역 문화 특산물 특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제용 도의원은 "국제대회 개최가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육시설 활용에 이바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제용 의원은 "대회 개최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인프라 및 풍부한 먹 거리와 함께 다양한 문화 인프라 확충하여 대회 참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기 위해 앞으로 각종 대회 유치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원제용 의원은 "스포츠 마케팅은 각 지자체 마다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강력한 차별적인 브랜드 포지셔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브랜드의 효율적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앞으로 문화와 먹 거리 산업의 스포츠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투자가 뒤따라야 합니다."고 밝혔다.

원제용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현재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를 맡고 있으며, 한중의원국제교류협회장을 맡아서 국제교육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문화 현안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원제용 의원은 태권도 공인 6단 태권도 국제태권도심판의 정통 태권도인으로 원주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원주시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을 역임했다.

2023 08 08 ()

江原日報

동정-강원도의회

심오섭(국민의힘.강릉)강원자치도의회원은 9일 오후 7시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명주인형극제 10주년 기념식 및 개막공연에 참석.

원제용(국민의힘.원주)강원자치도의회원은 9일 오후 2시 원주 인터불고호텔 1층 다이아몬드 홀에서 열리는 첨단 국방과학도시 원주 비전 선포식.포럼에 참석.

최재석(국민의힘.동해)강원자치도의회원은 9일 오후 2시 강원도청 2별관 회의실에서 열리는 균형발전 워킹그룹 1차 검토회의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08 09 ()
12



최재석(동해) 도의원은 9일 오후 2시 도청 제2 별관 회의실에서 열리는 강원특별법 균형발전 워킹그룹 1차 검토 회의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3 08 09 ()
21



◇최재석도의원(동해)은 9일 오후 2시 도청에서 열리는 균형발전 워킹그룹 1차 검토회의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08 09 ()
11



형극제 10주년 기념식 및 개막식에 참석한다.

김기영(왼쪽)시의장·심오섭 도의회 사회문화위 부위원장은 9일 오후 7시 강릉아트센터에서 열리는 명주인

江原日報

2023 08 09 ()
21

명주인형극제 10주년 기념식



◇심오섭도의원(강릉)은 9일 오후 7시 강릉아트센터에서 열리는 명주인형극제 10주년 기념식 및 개막

공연에 참석.

2023 08 09 ()
01

江原日報

‘반도체·바이오헬스·수소’ 국비 확보 분수령

김 지사 오늘 기재부 방문 ‘3대 전략산업’ 막바지 세일즈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 3대 핵심 전략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바이오헬스·수소 분야의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막바지 세일즈에 나선다.

김진태 지사는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내년 강원자치도 주요 국비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한다. 도는 이번이 내년 정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예산 확보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기재부 실무진까지 두루 만나 3대 핵심 전략산업의 당위

성을 어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은 김진태 도정의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는 점에서 전략산업에서도 확실한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반도체 산업의 경우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에 30억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20억원,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45억원 등 총 95억원의 반영을 요청했다.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

터의 경우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텔, 케임브리지대 밀너의약연구소와 협업을 계획 중이다.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는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에 조성할 계획이다.

이 중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의 국비 반영은 긍정적이지만 나머지 사업은 막판까지 타 지자체의 반도체 사업 계획과 경합이 예상된다.

최기영기자

2면에 계속

2023 08 09 ()
02

江原日報

‘반도체·바이오헬스·수소’ 국비 확보 분수령 -1면에서 계속

바이오 분야의 경우 차세대 체외진단 실증(춘천), 노인성질환 조기진단 및 예방 기술개발(강릉), AI 기반 디지털헬스 수출 지원 플랫폼(원주), AI헬스·바이오R&D센터 구축(춘천·강릉)에 148억원의 반영을 노리고 있다. 아직은 전액 반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소 산업의 경우 3,200억원대 대형 사업인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국비 12억원의 반영을 요청했다. 예타 통과 여부에 따라 예산 반영이 결정될 전망이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기재부에서 정부 예산안 최종 심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 주가 중요한 고비로 실무진들을 만나 마지막 설득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江原日報

태풍 북상에 도내 축제·행사 줄줄이 연기

서평·태권도대회 등 일시중단
지자체 각각 비상 체제 돌입
산림엑스포 주행사장 점검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들이 각종 축제와 행사를 줄줄이 연기하고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특히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강수량 600mm의 폭우가 예상되며 동해안 지자체들이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에 나서는 등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다.

■축제·행사 취소 및 연기=양양군은 8일부터 5일간 개최하려던 ‘2023 해양수산부장관배 서평대회’를 연기했다. 삼척시도 ‘시장과 함께 하는 동네 한 바퀴’ 야외행사를 미뤘다. 동해시는 9일부터 예정됐던 제천시 청소년참여위원 방문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릉시도 11일 오후 7시 개최하려던 시민 컬링대회 및 빙상페스티벌 개회식 취소 여부를 9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의 부대행사로 치러지는 치맥축제는 9, 10일 일시 중단되고 같은 기간 야외 프로그램도 전면 취소됐다. 정선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8일 도 재난상황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태풍 카눈 대비 화상회의를 갖고 있다.

군은 제7회 정선 강변가요제 개최일을 12, 13일에서 18, 19일로 연기했으며 10일과 17일 각각 열릴 예정이던 평창군 ‘로컬브랜딩 평창다움, 토크 콘서트’는 17일 하루만 진행한다.

■태풍 피해 사전 점검=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8일 오후 도내 18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태풍 대비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 것을 주문했다. 또 시·군별로 산사태 위험지역 2,933곳, 급경사지 2,143곳, 침수도로 27

곳을 비롯해 빗물받이, 반지하주택, 둔치주차장, 지방하천 등의 사전 점검에 나섰다. 재난예·경보시설 3,429개에 대한 활용체계도 점검했다.

또 인명피해우려지역 279곳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이·통장 등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주민대피계획을 가동한다. 동해안 6개 시·군 86개 해수욕장과 항만 등은 태풍 북상 시 출입이 통제된다.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김명선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는 8일 하계휴가에서 조기 복귀했다.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도 이날 전기관 조성이 한창인 고성군 토성면 세계잼버리수련장 주행사장의 배수로 점검, 절개지 보강 등 안전점검을 벌였다.

김진태 지사는 “위험한 곳은 주민 대피와 예방 조치를 확실히 하도록 시·군에 전달했다. 인명 피해가 없도록 선제 대응한 후 보고는 나중에 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산사태, 침수 우려지역에 대해 사전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동휘·최기영기자

江原日報

강원 노인 소외시키는 ‘디지털 장벽’

강원특별자치도 내 노인들이 ‘디지털 장벽’에 갇히고 있다.

속초에 살고 있는 김모(여·72)씨는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딸의 집에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버스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웠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부분의 좌석이 온라인 예매를 통해 매진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강릉에 사는 박모(여·78)씨는 터치 스크린으로 주문하는 식당에서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음식을 시키지 못해 따로 직원을 불러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서 10명 중 8명 “키오스크 주문 불편”
‘교통편 예매 어려움’ 응답도 94.9%… 지원제도 마련 목소리

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농·어민의 활용 수준은 70.6점, 70대 이상은 34.6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에 비해 고령의 농·어민 비율이 높은 강원자치도의 상황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지역 노인들은 일상생활 속에 스며든 무인화 서비스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20 노인실태

조사’에는 강원도 노인 10명 중 8명(78.8%)이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활용한 음식 또는 음료 주문이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기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예매가 어렵게 느껴진다고 답한 노인도 94.9%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같은 비대면 무인 서비스의 확대는 단순히 예매나 주문의 영역뿐 아니라 이미 생활 깊숙한 분야까지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은행 점포

수의 경우가 그렇다. 전국은행연합회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도내 은행 점포 수는 2019년 510곳에서 2020년 501곳, 2021년 498곳에서 지난해에는 485곳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인터넷·모바일 뱅킹 확산과 금융권의 경비 절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지만 도내 전역에서 ‘금융 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안희정 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개발부장은 “디지털 배움터 등을 운영해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사용법 등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빈기자

2023 08 09 ()
01

강원도민일보

‘가난한 강원 노인’ 국민연금 수령자 최하위권

65세 이상 중 수령자 48%
1인당 월 평균 52만3784원
전국 1위 울산과 22만원 차
노후 부담·빈곤 심화 우려



강원지역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령자 비율이 전국 최하위로 집계되는 등 강원도내 고령층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렸다. 더욱이 1인당 국민연금 월 지급액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도는 13위에 그쳐 초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는 강원도 노인들의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8일 국민연금공단의 '2022년 국민연금 통계연보'에 따르면 강원지역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은 48.69%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비율 1위 지역인 울산(58.69%)과 비교하면 10%p 격차가 벌어졌다. 지난해 강원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4만1042명으로 전년(32만4129명) 대비 1만6913명(5.2%) 늘었으며, 고령인구 비중도 22.3%로 전국 평균(17.7%)을 상회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은 강원지역 노령연금 수급자는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노인들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강원지역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반환일 시금수급자 제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5만5472명에서 2019년(16만7938명)엔 16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21만8358명으로 20만명대로 첫 진입했다. 올해 4월 기준, 도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22만1491명으로 4개월 만에 3133명(1.43%) 늘었다.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커지며 국민연금이 부각되고 있지

만정작 강원지역은 1인당 월 지급액 평균은 52만원대로 전국 13위 수준이다.

도내 1인당 월 지급액 평균(올해 4월 기준)은 52만3784원으로 전국 평균(56만3516원)에 못미쳤다. 강원도의 경우, △전남(48만2960원) △전북(48만5148원) △충남(50만8274원) △제주(51만9173원) 다음으로 낮았다. 월 지급액 1위 지역인 울산(74만5330원) 대비 22만1546원(42.29%) 적었다. 타 지역에 비해 노후 부담이 큰 셈이다.

도내 시·군별로는 삼척이 56만4931원으로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넘었다. 태백(56만1253원)도 56만원을 웃돌았다. 그러나 양구가 46만8683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 1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고 속초, 철원, 화천, 인제, 고성, 양양 등 7개 지역이 50만원을 넘지 못했다. 시·군 간 편차도 크다. 7개 시지역 평균 지급액은 53만5308원인 반면 11개 군지역은 49만9481원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 관계자는 "강원 고령화 비율이 높음에도 정작 도내에서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잘 모르는 분위기"라며 "국민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우진

2023 08 09 ()
01

江原日報

태풍 '카눈' 강원 직격
600mm 폭우 쏟아진다

10일 본격 영향권 전망

제6호 태풍 '카눈'이 당초 예상과 달리 서쪽으로 경로를 바꾸며 강원 전역이 태풍의 위험지대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2·10·12~14면

영동지역에는 9일부터 최대 6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10일 새벽 3시께 서귀포 동쪽 약 170km 해상에 강도 '강'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날 오후 3시께 충주 남쪽 약 100km 육상을 거쳐 11일 새벽에는 서울 북북동쪽 약 40km 부근을 지나며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됐다. 당초 일본을 거쳐 동해안으로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됐던 카눈의 이동 경로가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태풍을 서쪽으로 밀고 있기 때문이다.

카눈이 서쪽으로 조금씩 이동한 채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가로지르며 강원 전역이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위험반원'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태풍의 오른쪽은 바람이 강해 위험반원이라고 불리는데 8일 기준 강원 전역이 태풍 예상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해있다.

더욱이 카눈은 2002년 강원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 루사처럼 느린 속도로 한반도를 훑고 지나갈 것으로 보여 피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카눈이 서귀포 해상에 진입할 때 속도는 시속 18km로 태풍의 평균 북동진 속도인 30~40km보다 현저히 느리다. 속도가 느리면 정체 시간이 길어져 피해가 커진다. 2002년 8월 시속 18km로 한반도를 통과한 '루사'는 강원지역에 143명의 인명 피해를 남겼다. 당시 강릉에는 하루 만에 870mm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도 전역 태풍 위험반원에 위치
2002년 루사처럼 느리게 이동
지자체 피해 우려 대비 초비상

강원지역은 10일부터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8일 오후 3시를 기해 강원 전역에 태풍 예비특보를 내렸다. 태풍 예비특보는 10일 오전 영동지역, 오후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태풍특보로 전환될 예정이다.

9일부터 태풍이 북한으로 빠져나가는 11일 오후까지 예상강수량은 영서 80~120mm, 영동 200~400mm로 곳에 따라 6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이다. 특히 영동에는 시간당 60~80mm, 최대 10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이 북상하며 유입된 다량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이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된다는 분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어느 지역 하나 안전한 곳이 없다"며 "특히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강원 영동지역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오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8 09 ()

/ 19

속·고·양 문화도시 공동모색 바람직

- '탈서울' 이주민과시민 주도 활동공유 포럼 개최논길

속초·고성·양양 3개 시군에서 지역 주민자발적인 문화 교육 생태 활동으로 활기를 불어넣은 경험을 공유하고 지향점을 모색하는 공동포럼을 열어 주목됩니다. 속초문화관광재단, 고성문화재단, 양양문화재단 공동으로 어제(8월8일) 속초에서 '속·고·양 고이스트(Go-East)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역별 현장에서의 문화경험을 공유하고 해외 사례를 탐구하며 연대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됐습니다. 3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석해 문화교류를 통한 상생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공동 대응 그리고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연계를 통한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취지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영북지역'으로 불리는 속·고·양은 근래 관광객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여행을 넘어 '탈서울' '탈수도권'을 외치며 이주하는 귀촌인과 청년층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포럼에서는 영북지역에서 새로운 생활을 꿈꾸며 이주한 외지인들의 정착기 및 그 과정에서 시도해 온 다양한 문화활동과 생태교육 프로그램이 공유됐습니다.

양양 귀촌 5년차인 전옥량씨는 교육 및 육아공동체를 운영하고, 기후위기에 대처한 새활용주식회사 활동 등을 알렸습니다. 고성에서 출판사를 운영

하는 박대우 온다프레스 대표는 성과주의와 중앙집중 관점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지역가치가 보인다고 비교를 멈추길 강조했습니다. 속초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이사이자 비영리 청년단체 상담속초 정미현 대표가 주민, 여행객과 함께해 온 문화예술, 교육, 환경체험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속·고·양은 문화 요소를 강조하는 정책을 공통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속초시는 '공존문화도시 속초, 시민의 문화적 삶이 생동한다'를 비전으로 22년 예비문화도시에 이어 올해 본지정에도 전장을 냈습니다. 고성군은 지역의 숨은 공간을 문화거점으로 조성하는 달홀아트빌리지와 아트스테이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문화도시 선정을 향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리적, 문화적, 생태적 천연성을 가진 영북 3개 시군은 지속적인 의제를 발굴해 꾸준히 연대해야 깊이를 더하면서 당초 목적인 상생의 결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포럼에서 제기된 여러 제안을 정책으로 실행하는 적극성이 요청됩니다. 낯선 타지인을 환대하는 지역으로 변신하려면 개방적이고 다양성 가치를 존중해야 수월합니다. 강박적인 발전주의에서 탈피해야 지역에 사는 긍지와 즐거움이 드러난다는 지적도 수렴할 만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8 09 ()
/ 19

전통시장 기후 변수 기민한 대응을

-폭염·태풍 매출 영향, 쾌적·안전한 환경 조성해야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고물가에 전통 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릉중앙시장과 양양오일장 등 동해안 피서지 인근 시장은 피서객과 주민들이 물리고 있으나, 내륙 지방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장은 손님들의 발길이 줄었습니다. 특히 올여름을 뒀친 기록적인 무더위에 소비자들은 방문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들은 냉방시설이 잘 갖춰진 대형 할인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해, 시장 풍경과 대조를 보입니다. 더구나 10일 이후 전국이 태풍 '카눈' 영향권에 들어 전통시장 영업 대책도 서둘러야 합니다. 시장 상인들과 지자체는 여름 기후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은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대부분 시장이 차양 시설을 갖춰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지만,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 찜통더위가 심해집니다. 특히 고객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서의 체감 더위가 높아 방문을 꺼리게 됩니다. 하지만 무더위가 심해지면 선풍기로도 온도를 낮추기 힘듭니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 서금, 토야 시장을 찾는 손님들도 절반 아래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의 여름 매출 감소는 지표로도 확인됩니다. 올해 7월 소상공인

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지역 전통시장 전망 경기지수(BSI)는 61.5로 전달(67.7) 보다 6.2p 하락했습니다. 악화 사유로는 날씨, 비수기 등 계절적 요인(38.2%)이 가장 커 기후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상륙할 태풍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시장 배수구 등을 점검하고 바람에 취약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지난해엔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전국 22개 전통시장 1562개 점포가 침수돼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10일 상륙할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예보가 있어 더욱 철저한 대비가 뒤따라야 합니다. 위생과 시설물 관리, 점포 물품 안전을 위해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은 고객뿐 아니라 시장 상인들의 일상적인 영업 활동을 위해서도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7~8월을 전통시장의 비수기로 여기지 말고, 관광객 등 외지 손님을 부르는 호기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와 상인들의 소통이 우선해야 합니다. 고객들의 취향과 불만을 토대로 시장 통로 에어컨 시설의 제한적 사용 등 대책을 세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3 08 09 ()
/ 19

‘잼버리 파행’ 교훈, ‘청소년올림픽’ 철저한 준비를

강원특별자치도는 폭염으로 파행을 빚고 있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를 교훈 삼아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 대회는 청소년 선수 1,900여명, 코치진과 언론 관계자,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하면 1만5,000여명, 관중까지 모두 합산할 경우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더욱 그렇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2024년 1월19일부터 2월2일까지 70여개 국가가 참가한 가운데 치러진다. 이미 강원자치도와 정부는 대회의 성공 개최를 다짐하기 위해 대회조직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회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조직위 사무처는 현재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2본부5부의 총 50명으로 발족했지만 향후

조직을 확장하고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문제는 올림픽 주무대인 평창 대관령의 1월 한파다. 실제 올 1월25일 대관령의 최저기온은 영하 25.2도까지 떨어졌다. 개회식은 실내시설인 강릉 오벌(스피드스케이팅장)과 평창돔에서 이원으로 열려 그나마 낮지만 야외 설상경기의 경우 대회 기간 내내 선수, 관계자, 관중들이 한파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을 차분하게 세워 나가지 않으면 2023 세계잼버리대회의 ‘재판’이 될 수 있다.

도와 조직위는 대회 기간 참가자들에게 핫팩을 지급하고 설상경기장에는 메뉴당 3개의 난방텐트를 설치해 관중들이 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2018평

창동계올림픽 당시에는 경기장 접근을 위해 셔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한파에 노출됐지만 이번 대회는 개인 차량의 배뉴 접근 허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우리는 2018동계올림픽을 평창에 유치하고 뛰었던 열정을 또 한 번 살려내야 한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소중한 경험과 시설을 갖고 있다. 아울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강원인들은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내년 1월19일부터 평창·강릉·정선에서 열려
대관령 한파 치밀한 대비 성공 대회 만들어야
안전사고 등 모든 위기 상황 대처 리허설을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평창·강릉·정선이나 강원자치도만의 희망사항이 아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 개

최는 국가적 대사(大事)다. 이는 88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또 한 번 업그레이드시키는 역동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배가해야 한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예산 등 가용 자원의 규모는 물론 후원·협찬사도 올림픽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적기 때문에 강원자치도의 힘만으로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없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허점이 드러나면 국가적 망신이다. 예정된 모든 대회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리허설을 해야 함은 당연하다. 또 안전사고 등 모든 위기 상황을 상정해 놓고 대비를 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江原日報

2023 08 09 ()

/ 19

개학 앞둔 학교, ‘묻지마 범죄’에 안전 뚫려선 안 돼

지난 4일 대전지역 한 학교에서 대낮에 교사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울산에서는 초등학교에 대한 흉기 난동 예고가, 광주에서는 한 고등학교에서 모방 범죄(칼부림)를 예고한 대학생이 체포됐다. 학교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 예고가 잇따르자 도내 학부모들의 학교 치안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살인 예고’ 글로 검거된 이들 중 10대 청소년이 57.6%를 차지하고 있어 언제 어느 곳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열흘 후면 방학이 끝나고 각급 학교들이 연이어 개학을 한다.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 도교육청이 일단 학교의 외부인 출입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학부모들의 걱정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학교 대상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폐쇄회로(CC)TV 등 보안시설 확충, 학교 출입 시스템 강화 등 학교 안전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는 구호에 그쳤다. 실제로 2010년 6월 서울에서 8세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초등학교 1,000곳을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해 청원

경찰을 투입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곧바로 청원 경찰 채용에 따른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50~70대 학교 지킴이로 대체했다. 하지만 학교 지킴이는 평일에만 근무하고 주말에는 경비원이나 당직 교사도 없다. 학교 안 CCTV는 멀쩡히 작동하고 있더라도 이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 무용지물이다. 현재 도내 학교에는 자원봉사자인 배움터지킴이(169명)와 학교보안관(277명)이 배치돼 있지만 극단의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 등은 부족한 상태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학교다. 교사가 흉기에 목숨을 위협받고 학생들이 묻지마 범죄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맡길 수 있을 것인가. 도내에는 농촌 지역 학교가 많다. 도심 학교보다 경비가 더 허술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허점투성이인 CCTV 관리 실태, 경비 인력 현황과 운용 실태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응급 대책을 내놓고 흐지부지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만큼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육 정책이 최우선 순위다.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